



학령기 아동의 아동행동문제 예측모형

문 영 숙¹⁾ · 박 인 숙²⁾ · 박 영 옥³⁾

1)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2)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3) 충남대학교 통계학과 강사

= Abstract =

Prediction Model of Child Behavioral Problems in the School Age Children

Moon, Young-Sook¹⁾ · Park, In-Sook²⁾ · Park, Young-Ok³⁾

1)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2) Department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3) Department of Statistic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of child behavioral problems and construct a descriptive model that explains child behavioral problems for school age children. **Method:**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586 4th, 5th, 6th graders and their mothers. The children attended 8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Taejeon city and their mothers. The tools used in this study was the Mother's Child Raising Behavior Scale by Park, Seong-Yeon and Yi, Sook(1990). To measure child's self esteem, the Self Esteem Scale by Kim(1987) was used; child perceived social support was measured with the Social Support Evaluation Scale by Dubow and Ullman(1989), and childhood behavioral problems were measured with the Korean standardized of version of the 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K-CBCL)(1997). Descriptive statistics and 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LISREL) modeling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SAS and LISREL 8.12a programs were used. **Results:** The overall fit of the hypothetical model to the data was good ($\chi^2=103.07(p=0.00)$, GFI=0.96, AGFI=0.94, RMSR=0.04, RMSEA=0.07, NFI=0.94, NNFI=0.95) Maternal child raising behaviors(T=2.21) and child perceived social support(T=10.29)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a child's self esteem. Maternal child raising behaviors(T=-3.87), and child self esteem(T=-2.04) and had a significant total effect on child behavioral problems.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63 % of the variance of the child behavioral problems in the school age children. **Conclusion:** These finding have provided support for maternal child raising behaviors, child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hild self esteem as predictive variables of behavioral problems in school age children.

Key words : School age children, Child behavioral problems

주요어 : 학령기 아동, 아동행동문제

교신저자 : 박인숙(E-mail: ispark@cnu.ac.kr)

투고일: 2006년 9월 12일 심사완료일: 2006년 10월 27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In-Sook(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1-6, Moon Hwa-Dong, Daejeon 301-747, Korea

Tel: 82-42-580-8326 Fax: 82-42-584-8915 E-mail: ispark@cnu.ac.kr

서론

연구의 필요성

학령기 아동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따른 문제, 다른 아동들과의 빈번한 상호작용으로 인한 또래문제, 학교생활에서의 적응 및 학습문제 등 사회·정서적 어려움 등이 새롭게 부각되는 시기이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여러 가지 규칙과 규율을 충족시켜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학령기 시기의 아동들이 심리적·정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면 성장한 이후에도 많은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학령기 아동은 넓은 사회적 환경속에서 여러 유형의 다양한 행동들을 접하고 습득하는 시기이며, 실제로 이들 행동들은 적응 여하에 따라 긍정적인 행동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행동으로 발전되기도 하므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Jung, 2004). 최근 정서나 행동상의 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행동문제는 아동의 연령이나 사회문화적 규범에서 크게 벗어난 행동으로(Kauffman, 1993)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부모의 양육행동(Lee & Lee, 1998; Lee & Shin, 1998),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등을 들 수 있다.

아동의 사회화 과정과 행동발달은 아동을 둘러싼 환경,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자녀관계를 나타내는 양육행동이나 방식의 어떤 측면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탐색이 계속되어오고 있다.

효율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자녀가 부모의 통제를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 것이 용이하며, 부모의 행동기준이 안정적이고 애정적 이어서 자녀에게 신뢰감을 주고, 타인을 존중하는 행동모델을 보임으로써 효율적인 강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민주적 부모는 자녀의 발달수준에 맞추어 민감하고 반응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자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적절한 기대를 하고, 자신이 유능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도록 하여 자존감과 성숙수준을 높이고 자율성 발달을 촉진시킨다. 그러나 부모의 개입이 지나치게 부족할 경우 자녀는 심각한 발달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반면, 부모의 개입이 과도할 경우에는 자녀는 자율성이나 독립심 발달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자아개념의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방식, 성장시 환경, 성장시 외상적 경험, 성별 등으로, 이 중에서도 비행과 관련하여 특히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아개념의 확립에 중요시된다.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인 태도가 아동의 높은 자아존중과 관련된다는 연구결과

부모와의 관계 특히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 및 양육방식이 자아개념의 형성과 발달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정환경 관련 변인들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Park, 2002). Webster-Stratton과 Herbert(1994)도 정서 부족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들고 있으며, 위축, 과잉, 공격, 퇴행, 강박과 같은 아동의 부적응행동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Kim, 1989; Kim, 1992). 따라서 부모의 자녀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개념, 성격, 인지능력 및 사회적인 적응력, 그리고 아동의 생활습관이나 행동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적지지만 할 일을 분담하고 물질적 혹은 인지적 도움을 제공하거나 정서적 안락감을 제공하여 개인의 지배감(sence of mastery)을 고양시키는 사회적 활동의 결과라고 했다. 아동의 사회적 세계는 친밀한 관계의 여러 관계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달과정을 통해 개인은 가장 친밀하고 중요한 부모와 형제를 비롯하여 친구, 교사 등의 많은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게 된다.

Belle과 Longfellow(1983)는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사회적지라고 정의하면서 아동의 친구선택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즉 어머니와 친구에 대한 높은 신뢰감을 인식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자기 가치가 높고 고독감을 적게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가족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보다 자아개념과 학업성취가 높았으며, 학교 친구의 지지를 받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보다 또래 관계에서 자아개념이 높았다. 반면, 또래 지지를 적게 받은 청소년은 또래지지를 많이 받은 청소년들보다 학업성적이 낮고 학교 결석이 잦았다. Turner(1981)는 사회적지지가 결여되었을 때 불안, 우울, 분노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사회적지지는 개인이 처한 환경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향을 제공해 주는 기능을 한다. 즉 개인이 자신의 정체감을 유지하고 자존심을 지키며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적지지가 정서적 적응, 생활만족, 정신과 신체적 건강, 그리고 성인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동에게 있어 부모는 가장 중요한 지지 원천이며, 특히 어머니는 초등학교 아동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양육과 친밀성의 주요 원천이다. 어머니와 긍정적인 관계를 보고한 아동들은 높은 학업성취와 성격적인 적응을 나타내었고, 어머니를 신용하는 아동들은 자존감이 높고, 내적 통제 성향을 나타내었다(Bell & Longfellow, 1983).

Kim(1994)은 아동들이 가족, 친구, 선생님과 같은 주위 사람들이 자신에게 지지를 많이 제공한다고 인식할수록, 정서적, 정보적, 자존감 지지행동을 주위 사람들이 아동에게 많이 수

행할수록, 그리고 아동에게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지지원의 수가 많을수록 아동의 행동문제가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사회적지지체계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Sung, 1992)에서 보면 어머니가 아동에게 정보적, 정서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기능을 제공해 줄수록 아동의 행동문제는 적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발달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부모-자녀관계에서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과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아동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을 설정한 후 이를 검증하여 봄으로써 아동의 행동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탐색하고 이를 근거로 아동의 행동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 간호 중재 기초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학령기아동의 행동문제를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 학령기아동의 행동문제를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과 실제자료간의 부합도를 검증한다.

용어의 정의

• 자녀양육행동

자녀양육행동이란 양육시에 보이게 되는 자녀를 대하고 가르치고 돌보는 구체적인 태도 및 행동을 의미한다(Kang, 1999).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Park과 Lee(1990)가 한국 상황에 맞게 개발한 어머니 양육행동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긍정적 자녀양육행동은 하위요인 중 합리적 지도, 애정, 성취, 적극적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녀양육행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부정적 자녀양육행동은 하위요인 중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자녀양육행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지각된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대인관계(사회관계망)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으로서(Cohen & Wills, 1985) 스트레스 상황의 경우 대인관계로부터 얻게 되는 인지적 정보, 정서적지지, 물질적 제공, 사회관계망의 소속감, 지지행동 등과 같은 자원이 이용될 때 이것들이 스트레스를 조절하거나 완화시켜 적응을 돕는 개인의 사회적 대처 자원이다. 본 연구에서는 Dubow와 Ullman(1989)의 아동을 위한 지각된 사회적지지평가척도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사회적지지평가척도의 하위요인으로는 가족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3가지를 두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지각한 자신의 여러 속성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적·감정적 태도이다(Kim,1987). 본 연구에서는 (Kim,1987)의 자아존중감 척도(SEI : Self Esteem Inventory)를 통해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의 행동문제란 일반적인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으로서 자신이나 타인을 괴롭히는 부적응 행동을 의미한다(Kang,1999).

본 연구에서는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Oh, Lee, Hong과 Ha (1997)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 K-CBCL)로 아동행동문제를 측정할 것을 말한다.

아동이 보이는 행동문제의 하위유형을 한국아동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내재화 행동문제, 외현화 행동문제, 혼합 행동문제의 세가지로 구분짓고 있다. 내재화 행동문제로는 우울/불안, 위축, 신체증상, 외현화 행동문제로는 공격성과 비행, 그리고 혼합행동문제로는 사회적 미성숙과 주의집중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행동문제가 많음을 의미한다.

가설적 모형

실행 연구결과에 기초해 구성된 가설적 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 아동의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2개의 외생변수와 2개의 내생변수, 즉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행동문제로 구성되었다.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 아동의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직접적 영향과 아동행동문제에 대한 직접적 영향, 그리고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아동행동문제에 대한 간접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경로가 설정되었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어머니의 긍정적 자녀양육행동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높을 것이다.
- 가설 2. 아동의 지각된 사회적지지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높을 것이다.
- 가설 3. 아동의 자아존중감정도가 높을수록 아동행동문제정도

는 낮을 것이다.

가설 4. 어머니의 긍정적 자녀양육행동 정도가 높을수록 아동 행동문제정도는 낮을 것이다.

가설 5. 아동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아동행동 문제정도는 낮을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학령기아동의 행동문제를 예측하는 가설적 모형을 검증하는 공변량 구조 분석 연구로 설계되었다.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대전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8개의 초등학교 4,5,6 학년 아동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선정은 대전시 교육위원회에서 지역별로 판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서 동부지구 가,나,다,라 지역, 서부지구의 가,나,다,라 지역에서 1개교씩 8개교를 층화 무작위 표집하였다. 선정된 8개 초등학교 4,5,6 학년 각 학년에서 1개 학급씩 무작위 표집하여 58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

●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Park과 Lee(1990)가 한국상황에 맞게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1문항으로 7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요인분석을 통해 검사도구의 구성타당도가 입증되었고, 문항양호도 분석(Cramer's $V=.50-.95$)과 내적일치도 분석(Cronbach $\alpha=0.62-0.81$)을 통해 척도의 신뢰도가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 $\alpha=0.91$ 이었다.

● 아동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아동의 지각된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Dubow와 Ullman(1989)이 만든 사회적지지 평가척도(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를 사용하였다. 국내의 Jung(1995)에서 번안되어 요인분석과 신뢰도가 검증되었으며 척도는 가족지지 10문항, 친구지지 9문항, 교사지지 9문항 등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alpha=0.91$ 이었다.

●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Kim(1987)의 자아존중감 척도(SEI: Self Esteem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용으로 제작되었으나 성인까지 적용범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부모, 또래, 학교, 개인적 흥미등 4개 영역에 대한 아동자신의 평가를 측정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0,1점 척도로서 25문항이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alpha=0.80$ 이었다.

● 아동행동문제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Oh 등(1997)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를 사용하였다. 117개 문항이며 3점 리커트 척도로 '그렇지 않다'(0점), '가끔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렇다'(2점)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문제를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 $\alpha=0.95$ 이었다.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1년 7월 2일에서 2001년 7월 14일까지 대전시내에 소재한 8개의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졌으며, 실시절차는 표집에 의해 선정된 학교에 연구자가 방문하여 담임 선생님들에게 충분히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담임 선생님과 함께 교실에 들어가 질문지를 배부하고 주의사항 및 응답방법을 설명하였다. 질문지는 어머니용과 아동용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배부하였고 응답 후 원래의 봉투에 다시 넣어 봉해서 가져오도록 지시하였다.

655부의 질문지를 배부한 다음 1주일 후에 회수하였다. 이 중 완전하게 기재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어머니용과 아동용을 짝지워 총 586 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방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수들에 대하여 PC-SAS program을 이용한 서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설적 모형의 부합도 및 가설검정은 PC-LISREL 8.0을 이용한 공변량 구조 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어머니와 아동 58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특성에서 어머니의 연령은 35세-40세가 341명

(58.2%)으로 가장 많았으며, 46세 이상이 27명(4.6%)으로 가장 적었다. 직업에서는 없음이 412명(70.3%),있음이 174명(29.7%)이었다. 교육수준에서는 고졸이 313명(53.4%)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이상 212명(36.2%), 중졸이하 61명(10.4%)이었다.

아동의 특성에서 아동의 연령은 12세가 201명(34.3%), 10세가 194명(33.1%), 11세가 191명(32.6%) 이었다. 성별에서는 남자가 262명(44.7%), 여자가 324명(55.3%) 이었다. 출생순서는 첫째가 300명(51.2%), 둘째가 238명(40.6%), 셋째이상이 48명(8.2%) 이었다.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외생변수 중 긍정적 양육행동은 평균 3.74(SD=0.41), 부정적 양육행동 평균 2.54(SD=0.44),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평균 2.22(SD=0.39)로 나타났다.

내생변수중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평균0.54(SD=0.17), 아동행동문제는 평균0.07(SD=0.07)로 나타났다<표 1>.

<표 1>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변수	척도	M	SD	척도범위
외생변수				
· 자녀양육행동				
· 긍정적양육행동	5	3.74	0.41	1~5
· 부정적양육행동		2.54	0.44	
· 지각된 사회적 지지	4	2.22	0.39	0~4
내생변수				
· 자아존중감	1	0.54	0.17	0~1
· 아동행동문제	2	0.07	0.07	0~2

가설적 모형의 부합도 검증

본 연구의 가설적모형에 대한 적합지수는 <표 2>과 같다.

<표 2> 가설적 모형의 전반적 적합지수

적합지수	$\chi^2(p\text{-value})$	GFI	AGFI	RMSR	NFI	NNFI	CN
최적모형	($P>0.05$)	0.9-1	0.9-1	0.05	0.9-1	0.9-1	200이상
모형의 적합도	103.07($P=.00$)	0.96	0.94	0.04	0.94	0.95	290

<표 3> 가설적 모형의 각 예측변수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및 다중상관자승치

	직접효과(T)	간접효과(T)	총효과(T)	다중상관자승치(SMC)
자아존중감				.81
양육태도	.46(2.21)*		.46(2.21)*	
지지	.56(10.29)***		.56(10.29)***	
아동행동문제				.63
양육태도	-.30(-.55)	-.80(-1.46)	-1.11(-3.87)***	
지지	.96(1.95)	-.98(-1.97)*	-.02(-.26)	
자아존중감	-1.74(-2.04)*		-1.74(-2.04)*	

* $P<.05$ (T절대값>1.96), ** $P<.01$ (T 절대값>2.58), *** $P<.001$ (T 절대값>3.29)

본 연구에서의 χ^2 값은 103.07(df=30, $p=.00$)으로 모델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χ^2 값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표본수가 200 이상으로 증가하면 모델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기 쉬우므로 χ^2 검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Jo,1999). 기초 부합치(GFI)는 0.96, 조정 부합치(AGFI)는 0.94, 원소간 평균차이(RMSR)는 0.04, 근소원소간 평균 차이(RMSEA)는 0.07, 표준 부합치(NFI)는 0.94, 비표준 부합치(NNFI)는 0.95로 가설적 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나 본 모형은 자료에 대체로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가설검정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각 가설의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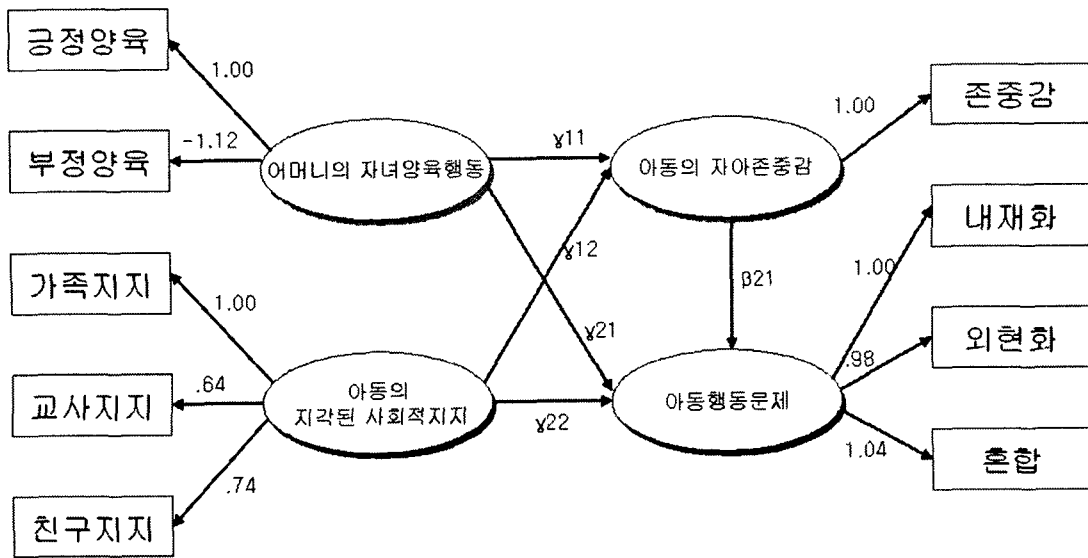
가설 1. “어머니의 긍정적 자녀양육행동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높을 것이다(ν_{11})”는 직접효과($\nu=.46$, $t=2.2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설 2. “아동의 지각된 사회적지지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높을 것이다(ν_{12})”는 직접효과($\nu=.56$, $t=10.29$)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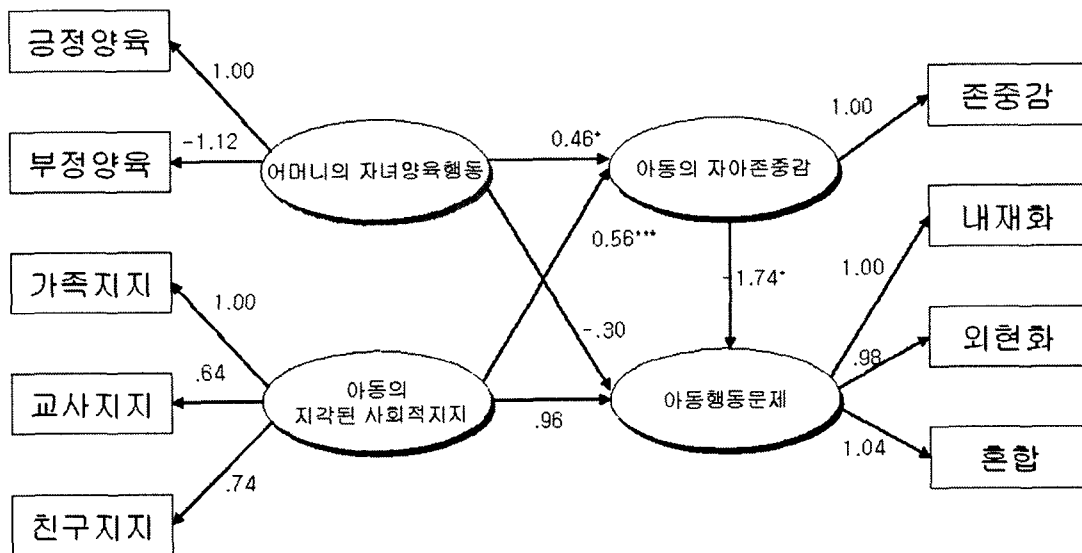
가설3. “아동의 자아존중감정도가 높을수록 아동행동문제정도는 낮을 것이다(β_{21})”는 직접효과($\beta=-1.74$, $t=-2.04$)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설4. “어머니의 긍정적 자녀양육행동 정도가 높을수록 아동행동문제정도는 낮을 것이다(ν_{21})”는 직접효과($\nu=-.30$, $t=-.5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를 고려한 총효과(-1.11, $t=-3.87$)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설5. “아동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아동행동문제정도는 낮을 것이다(ν_{22})”는 직접효과($\nu=.96$, $t=1.9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간접효과를 고려한 총효과



<그림 1> 아동행동문제 가설 모형



<그림 2> 가설적 모형의 경로 도해

(-.02, t=-.26)도 유의하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

반 의

학령기는 유아기와 청년기 사이에 있는 비교적 안정된 발달시기이기 때문에 아동기의 문제행동은 크게 드러나지 않아 자칫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청소년기에 발현될 문제행동들을 양성하게 되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학령기는 문제의 예방차원으로 볼 때 다른 어떤 발달단계에서의 문제행동 보다도 더욱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자녀양육태도, 아동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시도하였다.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배경요인으로 고려되는 외생변수들과 아동행동문제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려되는 내생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모두 고려하여 가설적 모형의 부합도를 검증한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적모형은 경험적 상황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 자녀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는 어머니의 긍정적 자녀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에게 중요한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며 아동이 생후 최초의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대상인 부모는

아동의 생활범위가 가정내에 한정되는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타인이다.

초등학교 4,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모 이별 경험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과의 자아존중 비교에서 부모 이별 경험아의 자아존중이 부모와 이별 경험이 없는 아동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중요 타인으로서의 부모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는 결과이다.

Wang과 Kim(2004)의 연구결과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애착안정성 및 학교적응에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Shim(1981)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권위적 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의 여러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온정, 수용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존감에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거부, 제재의 양육행동은 자존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어머니의 긍정적 자녀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직접효과를 미치고 있음과 일치하는 연구결과라고 볼 수 있다.

어머니 자녀양육행동과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에서는 어머니의 긍정적 자녀양육행동이 아동행동문제에 간접효과를 고려한 총효과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Lee(1995)의 연구에서도, 구체적으로 부모가 과잉보호적이고 매우 통제적이어서 자녀의 모든 행동에 간섭이 심하고 엄하여 권위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자녀는 내적갈등의 심리적 문제가 신체적 문제와 연결되어 틱(tic) 장애와 같은 발달상의 장애를 보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성격과 행동 그리고 정신병리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 자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성격은 물론 자아개념, 태도, 가치관 및 행동 수행 능력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Kwon, Kim,Ahn 과 Lee(2005)의 연구에서도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매우 관련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아동행동문제에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아동 발달에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Lee와 Kim(2004)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간 갈등 및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Kim과 Lee(2006)도 가정환경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과 매우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Cherry(1991)는 신체장애 청소년과 건강한 청소년의 자존감과 가족 및 친구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에 대한 지각간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신체장애 청소년의 경우 자존감에 있어서 친

구로 부터의 지지와 아버지로부터의 평가가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으며, 건강한 청소년의 경우 역시 가족과 친구에 대해 자존감에 대한 가족 및 또래지지의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아동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정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 정도에 직접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지각된 사회적지지와 아동행동문제에 관하여서는, Kim(1994)의 연구에서 아동이 지각된 사회적지지를 많이 인지할수록, 지지행동을 주위사람들이 아동에게 많이 수행할수록, 그리고 아동에게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지지원의 수가 많을수록 아동이 행동문제가 적게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Jung(1995)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스트레스 지각 수준을 낮춘다고 보고 있으며, Cohen과 Wills(1985)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아동으로 하여금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고, 이러한 인식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만들고, 문제행동을 예방한다는 견해를 보고하고 있다.

아동의 문제행동이나 우울이나 불안등에 대하여 사회적지지의 완충효과는 Dubois, Felner,Brand,Adan &Evans (1992)의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정도가 아동행동문제 정도에 총효과를 미치는 정도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간접효과를 유의하게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아동행동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아동으로 하여금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고, 이러한 인식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여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만들며 이러한 영향으로 아동문제행동을 예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보아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를 예측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 외생변수인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과 아동의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내생변수인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행동문제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예측변수들이 아동행동문제를 설명하는 정도가 63%로 나타나 예측변수들을 통해 아동행동문제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아동행동문제에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 아동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동행동문제의 예측적인 변인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 행동문제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구

조 모형을 구축하고, 이의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시도된 공변량 구조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적 모형은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과 아동의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2개의 외생변수와 2개의 내생변수, 즉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행동문제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1년 7월 2일에서 2001년 7월 1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대전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8개의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질문지는 총 586부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PC-SAS program과 PC-LISREL 8.0을 이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수들은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등의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였다.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로 분석하였고, 연구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가설적 모형의 부합도 및 가설검정을 위하여 PC-LISREL 8.0을 이용한 공변량 구조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설적 모형의 부합도는 전반적 지수 Chi-Square(χ^2)값이 103.07(df=30, p=.00), GFI 0.96, AGFI 0.94, RMSR 0.04, RMSEA 0.07, NFI 0.94, NNFI 0.95로 가설적 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나 본 모형은 자료에 대체로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긍정적 자녀양육행동, 아동의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긍정적 자녀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행동문제로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아동행동문제에 대한 설명력은 63%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아동행동문제에 중요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상호중재방법이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을 제언한다.
- 아동행동문제를 일으키는 경로에서 완충 또는 악화요인이 될 수 있는 어머니와 아동의 다른 특성에 관한 탐색적인 연구가 후속연구로 계속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profile*.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Vermont.
- Belle, D., & Longfellow, C. (1983). *Emotional support and children's well-being: An exploratory study of children's confidant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Detroit.
- Cherry, D. B. (1991). *Relations between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in physically disabled and able-bodied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Dubois, D. L., Felner, R. D., Brand, S., Adan, A. M., & Evans, E. G. (1992).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 63, 542-557.
-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 Clin Child Psychol*, 18(1), 52-64.
- Jo, H. C. (1999).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y LISREL, Sukjung.
- Jung, D. H. (1995). *A buffer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children's school stress and maladjustments*.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Jung, H. H., & Jung, S. H. (2004).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behavior problem and related variables. *The Korean J Human Devel*, 11(2), 1-19.
- Kang, C. Y. (1999).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attachment style, marital conflict, caring behavior, and behavioral problem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 Kauffman, J. M. (1993).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ural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5thed.)*. New York: Macmillan.
- Kim, B. I. (1992). *The analytic study between the fostering attitude, self-concept & the emotionally inadapive behavior*. Master's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K. Y. (1987). *The relation of parental of children · self-esteem and child-rearing attitudes to children's self-esteem*.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Seoul.
- Kim, M. S. (1994).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maladjustment of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S. R., Lee, S.H.(2006). The relations of family

- environment and the maternal parenting attitude to children's attention deficit - hyperactivity. *J Korean Home Economics Asso*, 13(1), 1-13.
- Kim, Y. S. (1989).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children's emotional maladjustment behavior*. Master's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won, M. K., Kim, H. W., Ahn, H. Y., & Lee, J. W. (2005). Children's perception of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and problem conduct of children. *J of Pediatr Nurs*, 12(3), 132-141.
- Lee, K. J., & Shin, H. S. (1998). The types of parental abuse and maladjustmental behaviors experienced by adolescents. *J Korean Home Economics Asso*, 36(8), 39-49.
- Lee, J. L. (1995). A comparative study on the maternal behavior between mothers of Tic-disordered children and mother of normal. *J Korean Home Economics Asso*, 33(5), 177-186.
- Lee, S. H., & Kim, K. W.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 and child behavior problems. *The Korean J Human Devel*, 11(1), 129-143.
- Lee, S. K., & Lee, J. Y. (1998) The effects of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 The theoretical process model. *J child Asso*, 19(2), 49-64.
- Oh, K. J., Lee, H. L., Hong, K. Y., & Ha, W. H. (1997). *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ChungAng Aptitude Publishing Co.
- Park, C. U. (2002). *The study regarding the marital relationship and the bringing up method of mother influenced on the problem conduct of the children*. Master's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 Park, S. Y. (198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Maternal Behavior Inventory. *J Korean Home Economics Asso*, 27(1), 151-156.
- Park, S. Y., & Lee, S. (1990). A preliminary study for the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Maternal Behavior Inventory. *J Korean Home Economics Asso*, 28(1), 141-156.
- Shim, Y. H. (1981). *A correlational study on children's perception of their parents' disciplinary styles and their self-concept*. Master's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Sung, Y. H. (1992). *A study on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supportive systems and the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Turner, R. Jay. (1981). Social support as a contingency in psychological well-being. *J Health Soc Behavior*, 22, 357-367.
- Wang, H. O., & Kim, K. W.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 attachment stability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The Korea J Human Devel*, 11(2), 77-88.
- Webster-Stratton, C., & Herbert, M. (1994). *Troubled families-troubles children : working with parents : a collaborative process*. Chichester : John Wiley & Sons.